

‘별교 꼬막’의 계절이 왔다… 먹거리·즐길거리 풍성

내달 1일 제20회 별교꼬막축제 1000인분 비빔밥·널배타기 대회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 참여행사 가을 산책 명소 ‘중도방죽’ 인기

찬 바람이 부는 보성 별교 꼬막의 맛과 멋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때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별교 꼬막’의 맛을 따라 갈 대가 일렁이는 중도방죽을 거닐며 소설 ‘태백산맥’의 흔적을 만나는 별교로 떠나 보자.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꼬막철이 시작된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가장 맛있는 시기로 알려진 지금, 별교꼬막 정식을 시키면 삶은 꼬막, 꼬막무침, 꼬막전, 꼬막탕수육, 꼬막된장국 등 남도의 푸집한 인심과 단단하고 쫄깃한 꼬막 맛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별교 꼬막은 대한민국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의 8품 중 1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되기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뛰어나다.



별교에서는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제20회 별교꼬막축제’가 개최된다. 꼬막정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꼬막의 산지 별교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0회 별교꼬막축제’가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전 꼬막 비빔밥 1000인분 △1000대 드론 라이트쇼 △꼬막 무료 이벤트(꼬막 경매, 꼬막 까기, 꼬막 무게 맞추기) △꼬막 노래자랑 △만원 꼬막 요리 뷔페 △황금 꼬막을 찾아라 △

바퀴 달린 널배 타기 대회 등이다.

별교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로 소설 속에는 별교가 면면히 묘사돼 있다. 별교 꼬막에 대해서도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는 등 군침을 삼키게 하는 탁월한 표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설 속 남도여관이라 불린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132호), 화폐박물관(구 별교금융조합·등록문화재 226호), 소화의 집, 현부자네 집, 태백산맥박물관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보성군은 태백산맥박물관 개관 16주년을 기념해 별교꼬막축제 기간인 11월 2일 ‘별교를 배경으로 한 태백산맥 속으로’라는 주제로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참가자들은 조정래 작가와 대담 형식으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광복 이후 한국전쟁까지 벌어진 여순사건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다룬 조정래 작가의 시선을 따라 책과 역사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도 등장하는 중도방죽은 일제강점기 힘겨웠던 우리 민족의 현실과 애환이 적나라하게 녹아있는 장소다.

별교대교까지 길게 이어진 중도방죽은 가을 산책 명소로 손꼽힌다. 어른 키 높이

의 갈대숲 가운데를 걸을 수 있는 갈대 탐방로에서 해 질 녘 아름다운 풍광은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큼 장관이다.

짬뽕어와 칠게, 염생 식물 등 다양한 갯벌 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입장료도 따로 받지 않아 출사 명소를 찾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보성별교갯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모래나 황토가 섞이지 않은 차진 진흙 펠로 예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재두루미, 큰고니 등 희귀 철새들의 최대 월동지로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6년 국내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란사르습지로 등록됐다.

2021년도에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보성별교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보성군을 찾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자문위원은 뱀배 어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갯벌 신청 유산 중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최고의 공간”이라는 평을 남겼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보성군, 악취 민원 제로화로 주민 호평

상습악취민원 4년새 ‘79→21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추진

보성군은 2019년부터 시작한 ‘악취 민원 제로화’를 향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통해 상습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때, 여름철 보성을 내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했으나, 관련 부서의 악취 저감 노력으로 2020년 79건이었던 전체 악취 민원 건수가 줄어 2024년 8월 말 기준 2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악취 민원 발생이 많았던 보성읍의 경우 전체 악취 건수가 ‘20년 27건에서’ 24년 7건으로 줄었으며, 축사로 인한 민원을 제외하면 기타 악취 민원 0건을 기록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악취 저감 사례는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다. 축사 밀집 지역 인근의 보성을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2.1km의 미세먼지 숲길을 조성해 악취 유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 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했던 이 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악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64개의 농가에 10억 원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과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10개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발효되지 않는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했다.

또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살포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등 군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이래로 매년 악취 발생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주민들이 시원한 밤공기를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 보성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라며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력해 나가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보성군은 최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사)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회장 김충희)에서 주관했으며,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50여 명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노인강령, 노인현장 낭독에 이어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신

모범 노인 19명과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8명을 표창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정)춘은 (바)로 (지)금부터 축하 퍼포먼스 △보성군립·나주시립 국악단 협연 △대학생 댄스동아리, 동화나라 어린이집 축하공연 등으로 행사 분위기를 띄워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송민섭 기자



보성에서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열려 김철우(왼쪽) 보성군수가 금상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성황

보성군은 지난 10일 보성군청 광장에서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차나무분재협회(회장 임봉현)에서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했으며, 14일까지 차나무 분재 100여 점과 소품 30여 점 등을 전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전

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을 비롯해 전국 분재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현장에는 10월에 피는 하얀 차꽃과 색색의 국화꽃이 한데 어우러져 분재 애호가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다향(茶香) 보성의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차나무 분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됐다.

공로상은 지주상, 대상은 김미경, 금상은 박용길, 은상 윤영돈, 동상은 박복규, 구희승 씨가 수상했다.

김철우 군수는 “녹차수도 보성에서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보성군은 차의 고장, 다향 보성의 품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차를 세계에 알린다는 마음으로 차나무 분재대전을 매년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2급 법정 감염병 ‘백일해’ 재유행… 예방수칙 당부

보성군은 봄철부터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백일해의 가을철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군민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환자 수가 2만21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염력이 높아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은 초기 일반적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고 이후 2~4주간 매우 심한 발작성 기침과 함께 숨을 들이쉴 때 ‘흙’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백일해 백신 예방접

종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백일해가 유행함에 따라 기침 예절 준수, 손 씻기 등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